

## 국 외 소 식



※ 이번호부터 국내외미디어정리 코너는 (주)연합뉴스와 정보사용계약의 체결에 의해 관련 기사를 제공합니다.

### 🌐 ① 印서 코끼리에 '번호판' 마이크로칩 이식

인도 뭄바이에서 코끼리를 이용한 구걸행위를 막고 이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코끼리 귀에 '번호판'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BBC 뉴스 인터넷판은 10월 7일 인도 당국이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동물인 코끼리의 '복지'를 위해 다음달 마이크로칩을 이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뭄바이 외곽 타니 지역에서 산림보호국장을 맡고 있는 사르파라즈 칸은 "몇몇 불법 코끼리들이 시내로 들어와 교통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구걸행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칸 국장은 코끼리 소유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등록증을 복사해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쌀알 크기의 칩을 이식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케랄라에서도 표범에게 칩을 이식했다"면서 인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종교적 의미가 있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등록 방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최근 라크슈미라는 이름의 30살된 코끼리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칩 이식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영화배우이자 동물보호단체의 후원자인 라홀 카나는 코끼리의 시내 진입을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수레시 카담 '동물학대 방지협회(SPCA)' 간사는 2002년에도 코끼리가 교통사고로 죽은 경우가 있다며 "뭄바이는 특히 상업도시라 코끼리가 다니기에는 도로가 좁다.

코끼리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내에 코끼리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뭄바이에는 코끼리 4마리가 법적으로 등록돼 있으며 주민들은 이 외에도 12마리가 더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중요한 신인 가네쉬 신이 코끼리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 코끼리가 중시되고 있으며 주로 결혼식이나 취임식, 정치적 집회 등에도 이용된다. 권혜진기자(lucid@yna.co.kr)

2006년 10월 8일

### 🌐 ② '영화출연 약속 어겼다' 견공 주인들이 소송

애완견을 영화에 출연시켜 유명한 스타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봤다는 개 주인들이 집단

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10월 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래리 라쿠르시어씨 등 10여명의 애완견 소유주들은 10월 1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할리우드 포스’를 상대로 LA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할리우드 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래리 리오네티씨의 광고에 속아 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달러씩을 냈지만 영화 출연 등 기대했던 결과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로트와일러종을 기르고 있는 레이철 암스트롱씨의 경우 개를 스타덤에 올려놓겠다는 말에 2천 달러를 기꺼이 냈지만 돌아온 것이라고는 ‘타이어 뱅크스 쇼’에 소품으로 잠시 스쳐지나갔을 뿐이었다는 것.

그래도 골리앗의 경우는 다른 저예산 영화에도 잠시 등장해 100 달러의 출연료를 받는 등 적어도 다른 개들에 비해서는 행운을 누렸다고 원고들은 입을 모았다.

이들 개 주인은 특히 리오네티씨가 2년전 회사를 설립한뒤 “동물 배우를 배출하는 지구상 최초이자 최대 텔런트 에이전시”라고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영화에서 봤던 여러 동물 스타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의 변호를 맡은 신시아 멀빌 변호사는 “주인들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없거나 성장한 상태에서 애완견을 가족과 같이 여기고 있는 상태”라며 “네 멋진 가족을 영화에 출연시키지 않을래? 라고 한다면 누군들 따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리오네티씨는 “개 주인들을 아역 배우의 부모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으며 개를 훈련시킬 것을 약속했지만 모든 개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수많은 남녀 배우 희망자들이 일정한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을 누구나 안다”고 주장했다. 장익상특파원(isjang@yna.co.kr)

2006년 10월 4일

### 동물 보호 모금 위해 30일간 개집(?) 생활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여성이 동물 관련 기금 조성을 위해 한달간 개 사육용 우리에서 생활해 화제다.

10월 3일 ABC 7 뉴스는 인디애나주 한 지역신문을 인용, 셰릴 워커(42)라는 여성이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30일간 메리언-그랜트 카운티 동물 보호센터의 가로 4피트(약 1.2 m), 세로 7피트(약 2.1m) 크기의 사육용 우리에서 생활했다고 보도했다.

동물 보호센터의 자원봉사자인 워커는 새로운 동물 보호소를 위한 기금 조성 과 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집 살이(?)를 실행했는데 워커가 30일간 개 사육장에서 생활하는 동안 조성된 기금은 8천161달러 88 센트였으며 110마리의 동물이 구조되거나 입양됐다.

워커는 사육장을 나오며 “기분이 아주 좋다. 집으로 돌아가게 돼 기쁘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지내온 사육장내 동물 식구들이 그리울 것” 이라고 말했으며 현재의 기부금이 자

신의 목표인 300만달러 모금에는 크게 모자라지만 앞으로 더 많은 기부금이 도착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미셸 홀튼 동물 보호소장은 “처음 워커가 개 사육장 우리에서 한달을 생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모두 워커에게 정신 나간 일이라고 했었지만 나는 감동의 눈물을 쏟았었다” 며 워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경원통신원(kwchrislee@yna.co.kr)

2006년 10월 4일

### ● 英법원, 어린이 공격 애완견 보호자 “6개월 징역도 모자라”

이웃 어린이의 얼굴을 물어뜯어놓은 애완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영국 여성이 법정에 섰으나, 재판부는 자신들이 부과할수 있는 형량 한도인 6개월 징역형으로는 처벌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9월 28일 4자녀의 엄마인 토니 배드콕(30)에게 전날 헌팅던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공장소에서 불도그 ‘버디’를 통제불능의 상태로 내버려둔 4건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배드콕은 이날 법정에서 남자친구의 애완견인 버디’를 돌보던 중 개가 남자친구의 집에서 뛰쳐나가 밖에서 놀던 조지 브라운(4)에게 덩벼들었을 때 자신은 개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버디’는 배드콕의 보살핌을 받던 지난 5월에도 사고현장 인근에서 조지를 포함한 어린이들을 공격한 적이 있었다. 조지는 이 사고로 인해 얼굴의 반쪽에 큰 상처를 입고 4시간의 대수술을 거쳐 200 바늘을 꿰맸다. 2주전 부모의 결혼식에 참석할수 있을만큼 회복된 조지는 그러나 당시의 악몽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다른 동네로 이사해야 했다.

조지의 부모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조지 때문에 신혼여행까지 미뤘다. 김화영기자(quintet@yna.co.kr)

2006년 9월 29일

### ● 中, 백두산 호랑이 620마리 방생

중국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 ‘백두산 호랑이’(東北虎)의 개체수 보호를 위해 인공 사육하고 있는 620마리를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훈련한 뒤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에 방생할 계획이다.

9월 28일 중국 전문 뉴스사이트 ‘온바오’에 따르면 현재 백두산 호랑이는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동북호림원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620마리가 방생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

동북호림원은 “4년 전부터 생존 훈련을 받은 12마리를 시범적으로 방생했다”며 “그러나 그 중 2마리만 야생에 적응했고 나머지는 다시 사육장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백두산 호랑이는 중국에선 ‘동북호랑이’로, 북한에서는 ‘고려범’으로 불리고 있으며 시베리아 호랑이,

만추리 호랑이, 아무르 호랑이 등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헤이룽장성 야생동물연구소 순하이이(孫海義) 소장 등 백두산 호랑이 전문가들은 “생자원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고 공공연하게 밀렵이 자행되고 있는 등 서식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생할 경우 현재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방생한 백두산 호랑이는 서식지 고립으로 인해 개체수 급감은 물론 멸종될 수도 있어 호랑이 번식에 적합한 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백두산 호랑이는 중국 동북, 러시아 남부, 북한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환경파괴와 밀렵 등으로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돼 보호 받고 있다. 왕길환기자(ghwang@yna.co.kr)

2006년 9월 28일

### 사우디, 애완용 고양이-개 판매금지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요 도시인 메카와 제다 시(市) 당국이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판매하는 행위가 이슬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종교경찰(무타와)에 단속을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9월 9일 보도했다.

이들 시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애완견 등을 기르는 것이 사우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

현지 언론은 애완용 개나 고양이를 갖는 것이 이슬람 사회를 파괴드는 서구문화라는 시각이 사우디에 존재한다며 서구문화가 확산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알-마디나 신문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거리나 쇼핑몰을 활보하는 나쁜 풍조가 퍼지고 있다”며 이는 “이교도들을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독자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사우디의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은 애완견 키우기를 패스트푸드를 즐기거나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비 이슬람적 문화를 모방하는 위험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우디 당국의 개, 고양이 판매 금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슬람에서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천대를 받아온 개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비해 고양이 매매를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큰 상황이다. 고양이는 이슬람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예배 전 몸을 씻는데 사용하는 물을 마시게 할 정도로 좋아한 동물로 알려져 무슬림들이 애완용으로 즐겨 기른다.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우디인들은 종교경찰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테러 예방 활동 같은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애완동물 보급을 막는 일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세진특파원(parksj@yna.co.kr)

2006년 9월 10일